조계종, 싱크탱크 인력 양성부터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이른바 집행부 '3원'을 통합하는 작업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의 3원 체제에서는 각 원마다 연구소가 있다. 총무원에는 백년대계본부 산하에 불교사회연구소가, 교육원에는 불학연구소가, 그리고 포교원에는 포교연구실이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불학연구소는 선·교·율을 연구하는 기능을, 포교연구소는 포교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동안 조계종 산하 연구소들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금번 3원 통합을 맞이해 종단 연구소들의 통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계종도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think tank)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연구소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연구 기능을 통합해 종합적 종책 개발을 하는 연구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3원의 연구소들은 설립 이후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연구소 간의 독자성 내지 단절성으로 인하여 불교계 현안과 대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종책의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출범하는 통합된 종단 연구소는 탈종교화와 종교인구 감소 등 불교 교단의 존속과 직결

3원 통합 더불어 연구기관도 통합
학문·현장 겸비 전문 인력 필요
종단서 종무직 선발해 진학시켜야

되는 종교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종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단 연구소가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 인력의 증원과 연구 업무 환경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조계종의 불교사회연구소,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의 연구 업무는 전문 연구 인력보다는 일반직 종무원이 행정 업무와 더불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불교 종단의 종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인력은 학문적 능력과 현장 전문 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직 종무원이 연구 업무를 병행하는 관례를 탈피하여 불교계 현장 경험이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여 연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우수 인력을 구할 수 없다면, 종단 인력 개발 차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이 있는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을 선발해 대학원에 진학시킨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종단의 연구 업무 풍토는 담당 연구원이 특정 과제를 전담하여 직접 연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연구자에게 연구 과제를 의뢰하여 제출받는 방식이다. 종단 연구소의 연구 업무 담당자는 연구를 전담하기보다는 행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종단의 업무 관행이 연구는 행정의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는 학문적 능력과 현장적 능력을 구비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영입하더라도, 결국 그를 떠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종단 연구 업무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소 내에서 연구 업무가 행정 업무의 보조가 아닌 핵심 업무로 자리를 잡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佛經, 세계인쇄사 이정표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줄임말인 직지(直指)는 세계에서 금속활자로 제작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초대 주한프랑스공사인 콜랭 드 블랑시가 1880~1890년 사이에 국내에서 구매해 프랑스로 가져간 이래로 현재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당시 적은 금액으로 입수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으로 손꼽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인쇄역사협회(American Printing History Association)의 홈페이지를 보면 인쇄역사 연표가 "1239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주석이 있는 깨달음의 노래'이다"라고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이가 1239년에 발간한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6종의 책이 전해진다. 이 중 '삼성본'은 1984년에 보물 제758-1호 지정됐고, 공인본(경남 양산 소재)은 2012년에 목판본의 후쇄본이라 하여 보물 제758-2호 지정됐다. 그러나 공인본이 목판본인지 금속활자본인지를 놓고 학계는 오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문화유산회복재단 학술위원 유우식 박사(웨이퍼마스터스 대표)가 국제학술지인 〈MDPI Heritage〉에 공인본과 이본(異本)의 차이점을 분석한 논문을 투고해 심사위원 전원의 추천으로 발표됐다. 여기에 미국인쇄역사협회가 이를 공

유우식 '남명증도가' 연구, 세계 주목
韓불경들, 最古 금속활자본 논쟁 야기

식적으로 인용함으로써 향후 공인본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서지학계는 여전히 목판본이라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우식 박사의 연구 논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국내 서지학계에서는 수차례 게재 불가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에서 최고(最古)의 목판본이라 평가받는 불국사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인쇄역사 연표에 누락돼 있다. 국내 서지학계와 정부는 이런 인쇄 역사를 알리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국은 기록의 나라이다. 유네스코에 등재한 한국의 기록유산을 봐도 알 수 있다. 2024년 현재 등재 건수는 18건으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5위이다.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중국(15건), 이란(12건), 인도(10건) 순이고 일본(8건)이 뒤를 따른다. '직지'는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지만 기록유산 등재는 한국이 했다.

1901년,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소개한 모리스 꾸랑은 〈조선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있다.

"한국 정신의 명석함은 아름다운 도서 인쇄에서,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자모(字母)의 완성도에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쇄 활자 구상에서 드러난다. 극동 문화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어서, 만일 그 입지가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 국가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 같은 평가의 근저에는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금속활자본 '증도가'와 '직지'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유산 실감 교육을 하면 '직지가 불교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제라도 불교계는 한국 정신의 명석함을 이끈 불서(佛書)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가 시급하다.

社 說

사리 환수, 회암사지 보존 활성화 계기로

경기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의 왕사(王寺)'라고 불렸던 조선 최대 사찰이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회암사를 매우 아꼈는데, 사찰 불사가 있을 때마다 신하를 보내 살피도록 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원인모를 화재로 사찰이 전소된 뒤 폐사됐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고 해 명종이 말렸다'는 기록이 남았는데, 회암사의 폐사가 '숭유억불'이라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가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전각이 전소되고 석불 등의 훼불이 뒤따르면서 창건주 지공 선사와 제자 나옹 선사의 사리, 석가여래·가섭불·정광불의 진신사리를 담은 사리구도 일제에 의해 불법 반출됐다. 이후 사리구는 미국 보스톤박물관이 사들이며 박물관 소장품이 됐다.

그로부터 100년, 3여래 2조사의 사리가 다시 한국의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왔다. 이를 기념하는 다례재가 5월 19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봉행됐다. 지공과 나옹의 법연이 다시 한반도에 나툰 것이다. 조선시대는 분명 숭유억불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왕실과 민간을 중심으로 불교는 면면이 이어지며, 한국 정신문화의 한축을 형성해왔다. 양주 회암사지는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도량이다. 이번 사리의 환수가 조선왕실 불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등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안한 대로 '선명상 센터' 건립을 통한 사지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출범에 부쳐

'문화재'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사라졌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불교문화유산을 비롯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문화재'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법 제정 62년 만에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바뀌게 됐다. 5월 17일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청의 조직도 전면적으로 변화했다.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재편, 통합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유산정책국'을 뒀다.

또한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 관련해 '종교유산협력관'이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불교의 경우 한국 유무·형 문화유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는 크다. 조계종과 태고종 등 주요 종단들의 잇달아 환영 논평을 낸 이유도 여기 있다. 국가유산청과 변화한 국가유산 정책이 전통문화 가치를 국민들에게 향유토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5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5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5월 2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